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식지 13기 6호



2024.07.22(월) | 발행인 경기지부장 이규선



중앙교섭
의견접근,

집단교섭도
의견접근



7월 16일(화), 11차례의 교섭 끝에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 의회가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서명**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10,150원(월 통상임금 2,293,900원)이다. 7.12(금)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10,030원보다 120원 높은 금액이다.

앞으로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전환 시 고용, 여성·청년고용 등 사회적 책임을 넓히며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동시에 공급망 전반을 살피 노동자 보호대책을 세우고 산업 정책 등을 정부에 제출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근로시간면제 제도 관련,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 노사 대정부요구]**.

변화해가는 노동시장 구조를 살폈을 때,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작년 통계기준, 이주노동자는 92만 명을 넘어섰다.

7월 18일(목), **지부 집단교섭 공동요구안도 의견접근**했다. 자연 감소 인원이 있어도 현 인원을 유지하며 안정된 미래를 대비하고 **[적정인원]**, 조합활동시간 확보로 사업장 간 격차를 좁혀 지부를 함께 책임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조합활동시간 보장]**.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으로 교육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사업장 보충교섭이 마무리되면 임금인상안을 포함해 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사가 계속 된다. 무책임이 반복된다.

관련자 기소와 처벌에만 집중하는 조사, 그나마도 최고 책임자는 빠져나간다. 진상규명까지 지난한 시간이 흐른다. 진상규명이 없다면 재발방지대책도 없다.



2022년 10월 29일(토) 밤 10시 15분경, 서울 이태원. 159명 사망(참사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이 포함되었다)·196명 부상. 지난 7월 15일,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구청장은 재판 과정 중에도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을 쏟아냈다.

2023년 7월 15일(토) 오전 8시 30분경, 청주 공평2지하차도. 14명 사망·16명 부상. “현장에 일찍 갔다고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충북도지사는 사망자 49재가 지나자마자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충북도는 지난 6월 말 지하차도 조기개통을 발표했으나 재발방지 대책 부실 지적에 개통을 연기했다. 참사 현장에서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협의회는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1분, 화성 전곡산단 (주)아리셀. 23명 사망(17명 중국인/1명 라오스인/5명 내국인)·8명 부상. 사망자 23명 중 22명이 출입구 반대편 고립된 장소에서 사망했다. 인력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은 작업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등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금 현재 (주)아리셀 사측은 김앤장을 선임하고 유족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합의를 중용하고 있다.

‘(주)아리셀’은 리튬 1차전지를 만드는 회사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렵다. 그러나 위험물질 관리나 화재 발생 시 대처 등 제대로 된 **안전관리 대책이 없었다**. 사측은 이전에 불이 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불과 며칠 전 불이 났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참사 이전, 최근 3년간 4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한 게 밝혀졌다.

사망자 대부분의 고용관계도 문제다. 사측은 ‘도급 계약을 했을 뿐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한다. 하지만 채용과정 전반의 상황을 볼 때 **위장도급-불법파견** 정황이 짙다. 인력파견 업체도 ‘업무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권리와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가장 열악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낮은 곳**이다. 사측은 의무를 저버렸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인 리튬 1차전지 업계는 제도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 **"조직된 노동자로서 열심히 활동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단 생각에 안타깝고 죄송하다"**. 추모제 발언자로 나선 한 지회장의 발언은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게 한다.

7월 1일부터 **매일 저녁 7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성시청에서 시민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지부 모든 사업장이 날마다 함께 하며 유족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100% 우리 잘못은 아니다"라는 사측의 실언이나 적극적으로 조력하지 않는 화성시와 정부의 태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처럼 보인다. 유가족은 제대로 된 사죄와 진상규명·재방방지 대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억울한 죽음, 분한 마음을 달래는 길이기도 하다.



여성조합원에 여쭙더니?

7월, 2024년 처음으로 진행한 여성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지부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했다. **1,500여 명** 여성조합원 중 **840명**이 참여해 **55%**의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조합원의 현실을 지부 전체에 공유하고, 설문에서 도드라진 이슈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활동의 방향을 잡아가기로 했다.

여성위원회는 지부 소식지를 통해 **8월-여성조합원 현황과 돌봄-기획노동**, **9월-안전·평등** 일터를 위한 노력, **10월-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집중할 일**에 관해 차례로 설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평균은 이래도 다 달라

경기지부 여성조합원은 **평균 13년**을 소속 사업장에서 일했고, **평균 35세** 정도다. 사업장별 생산품과 업무 특성에 따라 젊고 돌봄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조합원이 대부분인 사업장과 고령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으로 나뉘기 때문에 지부 평균과 사업장의 현황은 거리가 크다. **각 사업장별 통계**는 별도로 정리해 사업장에 공유한다.

돌봄, 임금 생각 다 달라

돌봄 전담가족이 있는 여성 조합원들은 미성년자녀 포함 평균 **2.1명**을 돌보고 있었지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휴직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더 많이 했다. 하지만 휴직 경험이 없다면서 실제로 휴직한 기간을 답한 경우가 또 많다. ‘돌봄노동으로 인한 휴직의 범위는 어디까지?’, ‘전업주부? 돌봄 휴직?’ 등에 관해 여성 안에서도 각자의 인식이 참 달랐다.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없다’, ‘모른다’고 답했지만 임금 격차의 사유는 체크한 조합원이 많아 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성의 날 ‘성별 임금격차 반대’를 주장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현실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나 공감의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세한 통계는 다음 호에 설명한다.

먼저 우리를 알아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여성조합원들은 지부 여성위원회가 가장 노력할 일로 **실태조사**를 꼽았다. 우리의 정확한 실태를 스스로 알고 함께 할 일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더 깊이 설문 결과를 살펴보고 함께 갈 방향을 찾아갈 예정이다.

여성위 어디에 집중?

